“포장 늦고 간판 가리고”…2호선 장기공사 상인들 ‘이중고’

잇단 개통 지연에 영업 피해 호소

임시 매트·턱 높이차에 안전 우려

출입구 구조물에 포스터 가리기도

市 “작업 마무리·투명 캐노피 설치”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동 한 의류 매장이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구조물로 인해 건물 외벽과 포스터 등 홍보물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왼쪽) 해당 가게 앞 보행로는 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들이 마모된 임시 매트와 자갈을 밟으며 지나고 있다. /서형우 기자

“7년 넘게 공사한다고 가게 앞 길도 엉망이고, 구조물에 가게도 가려지니 미칠 지경이죠.”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동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임동진(60대)씨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전남광주시는 기존 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착수했다. 시청, 상무지구, 백운광장 등 주요 거점을 잇는 1단계와 북·광산구 등 북서부를 거치는 2단계로 나눠 공사를 추진 중이다.

당초 2023년을 목표로 했으나 각종 문제로 일정이 잇따라 미뤄졌다. 지난달 전남광주시는 1단계와 2단계 개통 시점을 각각 2028년 12월, 2단계는 2035년 12월로 늦췄다.

공사가 장기화되며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날 주월동의 일부 상가 앞 보행로에는 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 매트가 깔려 있었다. 보행 공간은 성인 2-3명이 나란히 걸을 정도에 불과했고, 한 매장은 입구와 인도 사이의 높이 차로 인해 에어간판이 기울어진 채 놓였다. 시민들은 턱에 걸리지 않도록 발밑을 살피며 매장에 들어섰다.

주민 박모(50대·여)씨는 “소음과 공사장 분진 때문에 주변에 오기가 꺼려진다”며 “찢어진 매트와 돌부리에 발이 걸리기도 하는데 언제쯤 공사가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자영업자 김춘복(50대)씨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 매트를 고정한 못이 떨어지면서 뒤집힌 매트에 넘어지는 주민들도 자주 본다”며 “상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생활권 도로 공사부터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도시철도 출입구 구조물도 문제로 지목됐다. 한 출입구는 벽면과 진입부가 다른 구조물보다 성인 무릎 정도 높이까지 추가로 설치돼 있어 뒤편 매장들은 간판만 간신히 보였고 벽면에 붙은 포스터 등 홍보물도 상당 부분 가려졌다. 향후 비와 눈을 막는 캐노피까지 설치되면 간판까지도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씨는 “매장 자체가 가려지니 홍보와 고객 유입에 지장이 생긴다”며 “상습 침수지역이라면 차수시설이나 배수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구조물만 높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인근 매장들은 침수돼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지형적 특성으로 다른 정거장보다 출입구 구조물이 높게 보일 수 있다”며 “에스컬레이터에 눈과 비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캐노피 설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판 가림 등 상인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설계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구조물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로 포장 지연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아스콘 수급에 차질이 있었으나 최근 공급 업체를 확보했다”며 “오는 9일부터 미포장 구간의 포장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고용노동부, 나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권조사 착수

60대 노동자 폭행·흉기 위협 의혹

두 차례 사건 종결 논란에 재조사

감독관 교육·피해자 보호 강화 방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두 차례 사건이 종결돼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나주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60대·여)씨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흉기 위협 등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호스로 목을 조르는 폭행, 주방 칼을 이용한 위협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성명을 통해 사업주 자체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노동청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직권 재조사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 자체조사가 원칙이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사유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감독관 대상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복잡한 사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찬웅 기자

‘대출 빙자’ 휴대전화 1천226대 개통 해외 처분…30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넘겨받아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기와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6)씨와 B(36)씨, 휴대전화 개통업자 C(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7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5억5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3년간 대구와 부산, 광주, 일산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 명의로 시가 23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1천226대를 개통하게 한 뒤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개선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영암 조선소서 용접 작업하던 20대 숨져

노동단체 “특별 기획감독 실시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내부 용접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영암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영암군 삼호읍 한 조선소의 선박 내부 탱크에서 A(2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A씨는 조선소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선박 내부 탱크에서 홀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몸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사건을 중대재해 수사 담당 부서로 넘겨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성명을 내고 대불산단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 기획감독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HD현대삼호와 대불산단 등 광주·전남 지역 조선소에서 18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1월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하청·이주·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무기력한 노동부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즉각 대불산단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체계를 전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오지현·윤찬웅 기자

공소청 ‘나주 부부 강도살인’ 박용수 구속기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박용수(5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4일 박용수를 강도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용수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28분부터 11시56분 사이 나주 소재 주택에서 A(64)씨와 아내 B(63)씨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지현 기자

